

2011.07.11 미래정책연구실

□ 러시아 곡물 수출업사들에 곡물가격 인하 압력

1. FINANCIAL TIMES(2011.07.04) 주요 내용

- 러시아 정부의 수출금지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, 수입국들이 수입을 주저하여 러시아의 수출업사들은 가격인하 압력을 받고 있음.
 - 지난 금요일(7월 1일) 1년여 만에 해제된 러시아 정부의 곡물수출금지조치는 국제 곡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. 수출금지조치 등 정치적인 위험 요소 때문에 수입국들은 러시아로부터 곡물 수입을 재개하는 데 우려를 표명
 - 더욱이, 올해 국제 식량 생산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이집트 등 주요 수입국들은 러시아의 곡물 수입을 재개하는 데 소극적임.
 -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, 러시아 수출업사들은 국제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라는 압력에 직면
 - ※ 러시아 곡물 연합(Russian Grain Union)의 아르카디 즈로체브스키(Arkady Zlochevsky)회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러시아 곡물에 대한 수요가 전무한 실정으므로, 러시아가 밀을 판매하려면 가격을 인하해야만 한다고 언급
- 한편,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었던 러시아가 곡물수출제한조치를 해제함에 따라, 세계 밀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섬.
 - 러시아 밀의 본선인도가격은 현재 25% 하락한 톤당 240달러이며, 농업시장 연구소(IKAR; 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)에 따르면 향후 가격이 더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힘.
 - 이러한 러시아의 여파로 7월 1일 파리에서 거래된 유럽산 밀 역시 28% 하락한 톤당 183유로로 거래가 마감되었으며, 월요일에는 193유로에 거래됨.

< 밀 수출국 러시아 및 주요 밀 수입국 이집트 상황 >

- 러시아는 지난 5월 말 예정대로 7월 1일 곡물수출금지조치 해제를 발표하였으나, 모스크바 소재 일부 기관들은 국내곡물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즉각적으로 다시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, 수출국으로서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음.
 -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7월 내 150~2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할 예정이나, 7월 이후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함.
- 전통적으로 러시아 곡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이집트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러시아의 7월 인도분 밀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.
 - 이집트 국영 곡물 수입업체인 GASC(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)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집트의 곡물 수입업자는 8월분 러시아 밀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힘.
 - 러시아의 Renaissance Capital 농업 부문 애널리스트인 리처드 퍼그슨(Richard Ferguson)은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공급의 불확실성이 대두된 만큼, 이집트의 러시아 곡물 수입 거부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언급함.
- 한편, 러시아 농산물시장 민간연구소인 SovEcon의 안드레이 시조프 주니어(Andrey Sizov jnr)는 러시아 곡물 수출 가격이 한동안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수출국 지위 회복 전망
 - 러시아는 주요 곡물수출국 중 생산비가 가장 낮으므로, 장기적으로 볼 때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주요 밀 수출국의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함.